

제 11 차 대 한 두 경 부 종 양 학 회

연 제 초 록

1

하인두암의 치료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왕수건 · 노환중 · 고의경 · 전경명

하인두암은 두경부암 중에서 super malignancy로 불리울 정도로 예후가 매우 불량한 악성종양의 하나이다. 이는 후두암의 경우와는 달리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기진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진시 갑상선, 경부 식도 및 경부 임파절에 전이된, 진행된례가 많으며, 원발 병소 주위에 mucosal dysplasia 등 field cancerization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시 혹은 지연성의 중복암(second primary cancer)을 위시하여 폐, 골, 간장 등 타 장기로의 원격전이율이 높고, 고령의 환자가 많으면서 여러가지 합병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발생빈도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위암 혹은 자궁암과 같이 집단검진을 통한 조기진단이 불가능한 점 등 여러요인이 관여한다. 이에 연자들은 하인두암의 치료성적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1986년 부터 1994년 사이 하인두암으로 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추적관찰 중인 예를 대상으로 발생부위, 병기 및 수술방법과 예후와의 관계를 비교 검토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1) 부위별 빈도는 이상와 암이 26례(83.9%)로 가장 많았으며, 후윤상부암 4례(12.9%), 하인두 후벽암 1례(3.2%)의 순이었다.

2) 병기별 분포는 Stage IV가 17례(54.8%)로 가장 많았으며 stage III 12례(38.7%), stage II 2례(6.5%)의 순으로 진행암(stage III, IV)이 전체의 93.5%를

차지하였다.

3) 경부임파절 전이 빈도는 전체적으로 87.1%였고, T2에서 77.8%, T3에서 93.8%, T4에서 80%였다.

4) 술후 합병증은 인두-피부 누공은 일차적 인두봉합례에서 4례, PMMC flap재건례에서 1례, 유리공장에 의한 재건 1례, Gastric pull-up에 의한 재건 1례, 대장에 의한 재건 1례 총 8례였으며, 연하장애는 1차 봉합례 중 4례, D-P flap재건례의 1례, 총 5례에서 병발하였다.

5) 5년 생존율은 전체적으로 29.1% 이었으며, 이상와암의 경우 32.6%이었다.

결론적으로 하인두암은 진행된 예가 대부분이며 경부임파절 전이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술시 동측 경부곽청술은 필히 시행되어야 하며 때에 따라 양측 경부곽청술이 필요하다. 또한 무리한 하인두의 일차 봉합을 시행함으로써 재발 및 인두-피부 누공, 연하장애를 야기시킬 위험성이 많으므로 근피변 혹은 위, 장관에 의한 인두 및 이식 재건등 보다 적극적인 치료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새성낭종의 임상적 고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송민* · 차창일 · 조중생 · 안희영

새성낭종은 경부에 발생하는 드문 선천성종물로서 일반적으로 태생기발육이상에 의한 제2새성기관 잔유물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자들은 1980년 1월부터 1994년 4월까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에서 경부종물과 염증